

1년 내내 돈사 악취 시달리는 ‘장성 잠암마을’

장성군이 타 지역으로 위탁 처리될 돼지분뇨가 최초허가일로부터 5년 여간 단 한 차례도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본지의 보도(3월28일, 장성군, 타 지역 위탁한 돼지분뇨 '나 몰라라')했다.

보도 이후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으며 인근 지역은 물론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까지 수년 간 악취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악취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돈사업자들은 '나는 아니다'라며 책임 공방만 하고 있어 시급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가구가 거주하는 장성을 안평리 잠암마을. 마을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특정 계절 및 시간과 상관없이 돼지분뇨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2007년부터 2년간 어머님과 함께 거주할 당시에는 이렇게 심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귀촌을 위해 집을 증축 보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것 최초로 알았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 “창문 열면 돼지 생 분뇨 냄새 진동”

돈사 업자 “최신시설로 냄새 안난다” 책임공방

이런 실정에 악취에 대한 본격적인 민원제기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장성군은 주민들의 민원에 악취발생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마을과 1km이상 떨어진 A돈사와 B돈사로 지목했다. A돈사는 현재 8천여마리를 B돈사는 2개의 명의로 나뉘어 총 3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곳의 돈사가 지목되자 지난 2월 16일 장성군 환경관리과 담당자와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실시했던 냄새 포집을 해서 얻은 '악취오염도' 검사결과에서 A돈사의 경우 ▲14(검사일 5월 27일) ▲20(5월 27일) ▲4(8월 19일) ▲8(12월 8일)로 나왔다. 악취오염도의 허용기준은 15로 A돈사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B농장은 소유자 명의로 2곳에서 각각 이뤄졌다. 첫 번째 명의로 농장은 ▲10(7월 28

일) ▲10(8월 19일) ▲14(12월 16일)이며 두 번째 명의로는 ▲10(7월 29일) ▲8(8월 19일) ▲10(12월 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돈사 주인은 "우리(2개의 돈사)는 제작년에 최신식 순환설비를 갖춰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같은 업을 하고 있어 냄새의 원인이 누군지 말을 못하지만 우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돈사 주인의 말과 달리 허용기준인 15에 거의 다다른 수치인 14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민들은 B돈사 주인에게 "허용기준치 15에 거의 다다른 수치 14가 나왔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악취가 나지 않게 조치를 하라"고 항의했다.

잠암마을 주민들은 장성군에 한 달에 한차례 악취포집을 해 근거자료를 남겨줄 것과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성군은 이번 주 초에 악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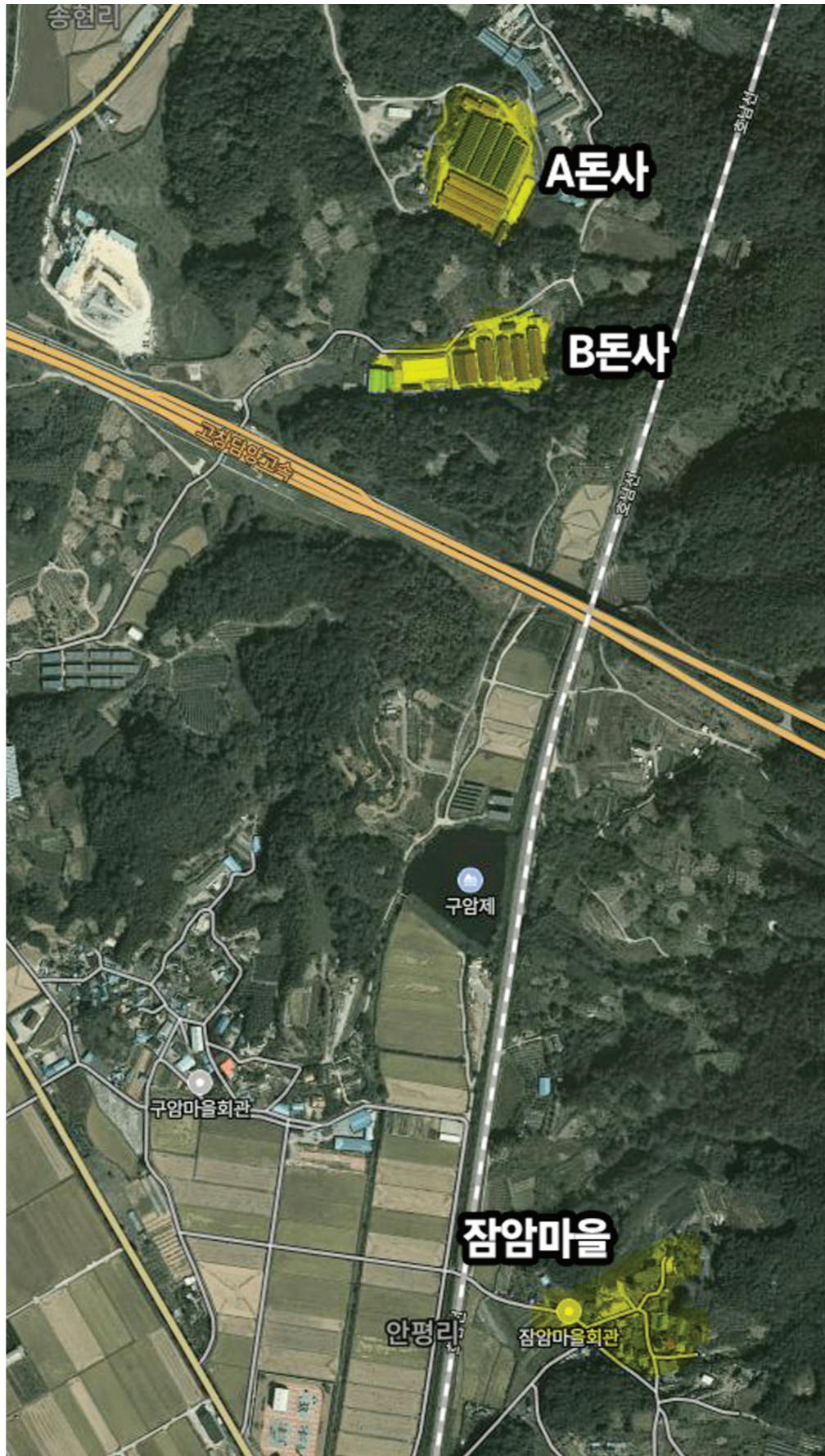
오염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농장이 허가 당시 애초 무안군 소재 업체에 분뇨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장성군이 지난 2020년 3월 장성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변경해준 내용을 확인했다. 무안군은 현재 해당업체가 처리해 살포한 액비에 잦은 민원이 제기돼 구속 중이라고 밝혔다.

A농장은 장성군에 '무안군에서 처리불가하므로 장성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며 이에 장성군은 자체 환경영역기관인 전남도립대학산학협력단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에 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를 요청했다.

도립대학산학협력단은 한 달여에 걸쳐 '공공시설 100%처리'가 가능한 결과를 장성군에 회신했으며 영산강환경영역청은 2020년 3월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범 기자



잠암마을과 악취의 원인인 돈사와의 거리는 A돈사 1.3km, B돈사 1.13km다. 2곳 돈사 모두 위치가 마을보다 높은 산등성에 위치해 돼지분뇨 악취가 바람을 타고 먼 마을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구글어스.

‘안전성 도마’ 지산IC 개통 또 연기…“전용차로 검토”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지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진출로 개통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첫 좌측(1차로) 진입에 의한 사고 우려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전용차로제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좌측 진출로 방식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산IC~소태IC 2.2km 구간 중 1.1km 구간을 출구 전용차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용도로(1차로)와 본 도로(2~3차로) 사이에 분리방을 설치해 1차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낮춰 지산IC 진출 전용으로 활용하고, 2~3차로는 80~9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해 IC를 빠져 나가는 차량과 직진 차량들 간의 안전성을 높이고 혼란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시는 오는 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전용차로 설치와 안전성, 교통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로 연기됐던 지산IC 개통은 또 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IC 개통이 수 차례 미뤄진 것은 지산터널 부근에서 최근 5년 간 17건의 교통사고로 50여 명이 다치는 등 전국 터널 중 16번째로 사고가 많이 난 고위험 고속주행 구간이라는 점과 동절기 미끄럼사고에 대한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국도29호선 화순탑석마을,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공항IC 등 1차로 진출입형 나들목이 전국적으로 4곳 뿐인 점도 '행정 리스크'를 높였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안전이 제1의 가치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전용차로로 확정될 경우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거쳐 이르른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폐쇄는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산IC는 설계비 6억여 원을 포함해 총 70억여 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연장 0.67km, 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으며,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맡았다.

두암타운 등 인근 통행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시민원터인 무등산과 지산원터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독특한 도로 구조 탓에 혼잡과 역주행이나 급정거,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 우려돼 왔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은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지역현안 이슈, 비리 등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 062-222-2580**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